

윤장현 시장 인권철학 접목 시정 돋보인다

5·18 계기 인권·시민운동 나서 세계인권포럼 소녀상 램프 선물 장애인·비정규직 문제 해결 앞장 캄보디아에 광주진료소 개설 인권·연대·나눔 광주정신 강조

윤장현 시장이 2016세계인권도시포럼 해외 참가자에게 남다른 선물을 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들로 구성된 '코끼리 협동조합'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소녀상 램프'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될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할머니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따뜻한 빛으로 치유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 램프가 세상 곳곳에서 인권을 비추는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를 대표할 다양한 선물이 있음에도 윤 시장이 소녀상 램프를 선물한 것은 그의 삶과 철학을 담고 있어서다. 그의 소신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풀어 안는 일에는 결계가 없다"는 지론에 담겨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세계인



소녀상 램프

권도시 포럼 이사 자격으로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자문역을 했던 윤 시장의 가이드 라인이었다. 광주정신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그는 당시 인권도시 개념과 지향점과,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정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인권 활동가에서 시장으로 변신한 그는 행정에 인권을 녹여넣고 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사업 지원은 시장으로서 첫 번째 결재한 문서다.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정책으로 비정규직 896명 가운데

743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채용했고, 나머지 인원은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네팔지진 피해 당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긴급구호단을 파견했고, 지난 2014년 캄보디아에 '제1광주 진료소'를 건립했다. 올 하반기에는 '제2광주 진료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윤 시장 인권철학의 핵심은 연대다. 결코 양보할 수도, 양보해서도 안되는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의 연대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연대를 바탕으로 고통에 공감하고 인권정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999년 5·18 세계화를 위한 제2회 국제청년캠프(태국), 같은 해 아시아 인권현장 선언대회를 개최하는 산파역을 맡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스리랑카 실종자 가족모임 지원에 나서 실종자 가족 모임이 태동하는 데 기여했고 국가인권의 날을 제정해 독재정부에 맞서는 구심점이 되는 데 힘을 보탰다. 윤 시장은 2001년부터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로 활동했다. 특히 모두 8명 밖에 없는 위원회의 이사로서 아시아인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가 위원회 멤버로서 활동하게 된 동기는 광주시민들의 명에 때문이다. 사

실 인권과 평화운동에서는 윤장현 시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게 중론이다.

윤 시장이 '인권지기' 활동에 나선 것은 광주항쟁 때문이다. 그는 "31살 조선대병원 시민군 주치의로 근무할 때 병원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분노했고,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내게 의사로서 보장된 삶을 포기하게 했고, 몇 년 뒤 시민운동에 뛰어든 계기가 됐다"고 회고한다. 이후 윤 시장은 87년 4월 광주항쟁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사진전을 기획했다. 80년 당시 사진이나 기록을 갖고 있는 언론인, 시민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톨릭센터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공안정국의 대표적 의문사로 꼽히는 이철규 열사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와 검찰에 맞섰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1987~2000년)을 지냈다.

오랜 동안 윤장현 시장을 지켜봐 온 한 인사는 "저항과 대중정신으로 집약되는 광주정신을 인권과 평화의 가치로 승화시켜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일을 해온 몇안되는 사람 가운데 한명"이라고 평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공무원들 급식봉사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 종건간부 리더과정 교육생 42명은 지난 29일 광주공무원 사랑의 쉼터와 광주직업소년원 사랑의 식당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시 제공>

광주 청년창업 활성화 힘 모으기로

市·창업멘토링센터 등 협약

광주시는 지난 29일 Startup Vill(동구 동명동, I-Plex 1층)에서 K-ICT 창업멘토링센터(미래부 지원), 광주테크노파크, (사)광주창업지원네트워크와 '광주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K-ICT창업멘토링센터(센터장 최병희)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원기관으로, 전문 멘토 36명으로 구성된 청년 기업가와 대학 창업동아리 등 성공창업 멘토링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에도 (사)창업지원네트워크 하상용 대표 등 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청년창업 촉진 및 창업관련 사업 발굴 등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경진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창업자 공동 발굴 ▲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공동 협력하게 된다.

오는 9월말 미래부 지원, 광주시 주최로 열리는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경진대회'는 광주를 창업도시로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있는 행사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 발굴과 멘토단 구성이 행사 성공의 관건인 만큼 광주시는 K-ICT창업멘토링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창업도시로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창업 성공률이 가장 높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올해 2월 '광주 청년창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창업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기술창업 확대와 창업 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창업도시 선포시 및 창업포럼을 통해 '청년 창업 붐'을 조성해 가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무더위 가축 질병 기승

광주보건연 방역 강화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무더위가 계속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절기 집중 방역관리에 나선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총 39회 142개 농가에서 질병 예방과 소독을 하고 있다.

8월 말까지 수시로 피해 농가를 파악해 원인을 진단하고 농장별 소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 폐사율이 높아지고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세균성·곰팡이성 질병과 모기매개성 질병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가축 사육 두수 적정 유지와 축사 청결, 변질되기 쉬운 사료관리 등도 지도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사료와 함께 비타민제, 대사촉진제 등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절기 가축관리 요령을 지키고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하면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축방역기관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588-4060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119소년단 안전캠프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28·29일 이틀간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전북 119 안전체험관'에서 119소년단 안전체험캠프를 개최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 제공>

광주보건환경연구원보 제18권 발간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한해동안 보건·환경·동물위생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고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과제를 선정해 연구한 결과물을 모은 '보건환경연구원보 제18권'을 발간했다.

총 13편의 논문과 조사보고서 14편이 실린 이번 연구원보에는 기후온난화로 발생 증가 우려가 가장 높은 썩쓰가무시증의

예방 대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분포하는 매개체에 대한 병원체 보유 현황을 조사한 내용, 시민발상의 단골메뉴인 콩나물류에 대한 잔류농약검출법 개선 방안, 온라인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축산물의 유통 실태조사 등 식생활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자료를 담았다.

또한, 광주지역 미세먼지와 오존경보 등

을 유발하는 환경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성과 주요 인자에 대한 분석 결과,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의 필요함을 제시하고, 생활민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분석법 개선 방법 등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도 실었다.

이와 함께, 인수 공통감염병인 '규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소의 규열 항체 보유율 조사와 도시뒤편으로 이용되는 도양에 대한 건강성 조사 등도 포함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구 청년들 "광주 홍보대사 될게요"

20명 광주서 1박 2일

영호남 청년들의 교류와 화합을 위해 대구청년위원, 대구청년센터, 대구 청년기자단 등 20여 명의 대구청년들이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광주를 방문했다.

대구 청년들은 28일 광주청년센터 the숲을 방문해 서일권 광주청년센터장으로 부터 광주청년센터 운영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광주청년들과 1 : 1로 조를 이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동명동 등 광주시내 주요 지점을 미션투어 형식으로 둘러봤다.

28일 오후에는 2016세계청년축제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양 도시 청년들의 화합을 위한 페인팅 퍼포먼스를 펼친 후 청년네트워크 파티에 참가해 청년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29일에는 양 도시 청년위원들이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추모관을 둘러본 후 아쉬운 작별을 했다. 김태우 대구청년위원장은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대구에서 광주를 알리는 홍보대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평택 토지 매매

★ 삼성전자 120만평 ★ LG 11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역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평택 신장동 (개발토지)
초역세권 송탄역 5분 (송북시장) / 토지 184평
오피스텔 65세대 신축가능
개발시 순수익 15억 발생
▶ 매가 12억

경기도 화성 A.P.T 분양전환

화순 시청 2분 !! 초 역세권 시청역 여의도까지 30분! 남양뉴타운 개발도시

① 매가 2억 3천 ② 대출 2억 ③ 임대 보 3천 / 월 70만

실 투자 1천만 (천만원에 집한채 마련) (1억에 10채)

지역 → 경기도, 서울권, 순천 전남권

오피스텔 및 사무실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6층 - 45평
▶ 최고급 인테리어 (약 5평 저은 썬룸방 1개)
(시설비 약 4천만) (사무실 2개)
▶ 천변로 전망 최고 !! 주차 완비
(사무실 최적합)

★ 매가 1억 4천만 ★

평택 고덕신도시 토지 (소액 투자)

① 평택시 고덕면 방촌리 (고덕 교차로 7분) / 120평 (평당 200만)
▶ 매가 2억 4천만

②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공단 옆) / 922평 (평당 30만)
▶ 매가 1억 4천 760만

③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고덕 신도시 5분) / 613평 (평당 95만)
▶ 매가 5억 8천 235만

(전남,순천) 20평형 A.P.T 분양

▶ 시세 → 1억 5백만 ▶ 매가 → 9천만 (웅8천만)
▶ 실투자 1천만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매매

(롯데마트 앞, 상무아파트 옆)

▶ 6층 - 23평
▶ 투룸 형, 코너자리, 리모델링완비, 풀옵션
보 500만, 월 45만
▶ 매가 8천 500만

커피숍 임대

(전대보증 2년 원룸촌 내 위치)

▶ 13평
▶ 시설비 일체 무료
▶ 단골 손님 다량유
보 500만, 월 45만
▶ 매가 1천 월 40만

010-6670-9800

010-7384-7800

062-382-5500 010-6834-4800